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공일자	2024. 7. 17. (수)	
정책분석담당관	장찬호	803-5110
정책연구1팀장	임창효	803-1541
담당자	김연희	803-5176

이재숙 의원, 이케아 무산 부지에 ‘아레나 공연장’ 건립 제안

- 이케아 입점 무산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 아레나 공연장 건립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7일(수)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케아 입점이 무산된 곳에, 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은 “지난해 말, 이케아가 대구점 건립을 철회하며 당초 기대했던 대구시민의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 업체 참여 기회 등이 무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이케아 대구점 유치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건립 무산으로 인해 4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안심뉴타운의 미개발 부지를 전화위복의 전략으로 문화시설을 도입해 지역 성장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음악전문공연장인 ‘서울아레나’의 사례를 들며 “K-POP으로 우리나라 음악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 등이 많아지면서 1~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급 공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는 인천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 타 지자체들도 해외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대구시는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창의도시인 대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가 있다”라며 “전문음악공연장이 생길 경우 시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이케아 입점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이 부지를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기회를 맞이했다”라며 “민간투자를 통한 아레나 공연장이 건립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수립해 반전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